

#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한 학기 한 권 읽기



## 그래, 그거였어! 소통의 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학년도 3,4학년 국어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단원의 등장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8차시 동안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어 보자는 것인데 3학년에서는 ‘끝까지 읽기’를, 4학년에서는 ‘꼼꼼하게 읽기’를 권장합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과 긴 호흡으로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고,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각자 혼자 읽기를 할 것인지, 같은 책을 함께 읽을 것인지, 모둠별

로 같은 책을 읽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지요.

어떤 작품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는 문학 작품 이야말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작품 속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교과서에 일부분만 실린 문학 작품으로는 학생들이 작품의 참 맛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한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책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작품 속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내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작품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읽기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같은 공간 속에서 1년 동안 살아갑니다. 함께 읽기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도 계속 쌓아갑니다. 함께 읽기를 하면서 유능한 독자의 도움으로 생각을 더욱 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각자 다른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읽어주기를 바탕으로 다시 읽기 과정을 통해 한 권의 작품을 같이 읽는 이러한 방법을 ‘온 작품 읽기’라고 합니다. ‘온 작품 읽기’로 교실에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 ▶ 책 읽기 전에 알아두기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빠져 이야기 속을 헤엄쳐 다니는 표정을 볼 때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저도 덩달아 기쁘고 신이 납니다.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안타까운 장면에서는 탄식을 하고, 긴박한 장면에서는 심장이 벌렁거린다면서 손을 심장 가까이에 두지요. 하루 수업 중에 선생님의 말에 가장 진실 되게 집중하는 시간이 책 읽어 주는 시간입니다. 문학 작품 속으로 모두 함께 풍당 빠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일상에서의 대화도 조금 달라집니다. 작품 속 인물이 한 행동을 따라하고, 대사를 그대로 옮겨 쓰기도 하고,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 성토했으면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풀어냅니다.

3월은 선생님도 학생들도 서로 낯설어서 조금씩 가까워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우면서도 ‘같이의 가치’와 ‘소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을 선정했습니다.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온 작품 읽기’ 수업을 통해 3-4학년군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가운데 ‘문학[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문학[4국05-05]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목과 표지만 보아도 무언가 엉뚱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칠판에 딱 붙은 세 명의 아이들’ 이 왜 칠판에 붙어 버렸을까? 이후에 어떻게 칠판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짐작하게 합니다.

책 표지를 보면서 교사의 질문으로 학생들의 읽기 흥미를 높입니다. “책 표지를 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은 “아이들 손이 칠판에 붙었어요. 손이 엄청 커요. 얼굴이 아래에 있어요. 비눗방울에 갇힌 아이도 있어요.” 하며 표지 읽기를 합니다. ‘칠판’ 이 책 표지의 윗부분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 손이 딱 붙어 있는 모습을 보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 의 표정을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까요? 세 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은 표지에 그려진 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주인공일 것이라 짐작하면서 이 세 명의 어린이가 지금 사이가 나쁜 상태임을 추측합니다.

이제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제목을 보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나요?” 에 대해 “칠판에 일부러 붙은 척하는 거다. 칠판에 붙어서 공부 안 해서 좋겠다. 아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먹느냐?” 며 처음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웃긴 이야기가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칠판에 붙은 까



닭이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을 해결하면 칠판에서 손이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학생들 스스로 정리해 나갑니다. 교사는 실마리를 던지는 제안자가 됩니다. 교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집니다. 교사는 우리 반 학생들이 하는 말을 기록해 두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면지와 속지를 보여 준 후에 글 작가와 그림 작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 줍니다. ‘최은옥’ 글 작가의 『책 읽는 강아지 몽몽』과 ‘서현’ 그림 작가의 『눈물 바다』, 『커졌다』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보여주었더니 한두 명의 학생들이 ‘저 책 읽어봤어요!’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가워합니다.

칠판에 차례를 적어 둡니다. 모두 11장까지 차례가 있다는 것을 보더니 “길긴 길구나!” 하길래 ‘장편 동화’ 라는 갈래의 이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차례를 읽으면서 이 작품의 내용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1장 말도 안 되는 일’ 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펼쳐질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마도 칠판에 딱 붙어 버리는 일 같다고 합니다. ‘9장 달빛 비치는 교실’ 제목을 보더니 이 사건이 밤늦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학교에서 밤새워야 하냐고 걱정도 하고요. 마지막 ‘11장 딱 붙은 사람들’ 제목을 보더니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이냐

면서 그림 2권으로 이어지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교사의 질문으로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전개 될지 미루어 짐작하면서 작품 속으로 들어 갈 준비를 합니다.

## ▶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읽기 과정은 교사의 읽어 주기입니다. 교사가 읽어 주는 동안 학생들은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에 귀 쫓긋 세우고 두 눈을 말뚱말뚱 뜬 채 집중하는 정말로 황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을 보지 않고 귀로만 듣는 과정은 작품 속 이야기가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학생들은 작품 속 세계에 폭 빠져 마치 자신들이 등장인물이 된 것 마냥 등장인물의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합니다. 교사의 읽어 주기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던져 사고의 과정을 돕습니다. 또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어 줍니다. 작품 속에 그려진 삽화를 칼라 인쇄하여 칠판에 붙여 가면서 읽어 주거나 삽화를 스캔해서 텔레비전에 띄워 주면서 읽어 주어도 좋습니다.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작품의 경우 교사의 읽어 주기 시간은 4차시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교사의 발문에는 작품을 이해하는 질문, 사건을 예측하는 질문,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는 질문 등을 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장면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던져야 합니다.

**1장. ‘말도 안 되는 일’** 을 읽어 주면서 작품 속으로 학생들을 안내합니다. ‘기웅, 동훈, 민수로 구성 된 세 박자’ 삽화를 보여 주면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세박자’ 라는 낱말을 듣더니 우리 반에 있는 박 씨 성을 가진 친구들을 쳐다보며 ‘너희도 세박자 해도 되겠다’ 라고 합니다. 다른 작품과 달리 1장에서 바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칠판에 손이 철썩 붙은 장면’ 을 읽어 주면서 삽화 그림을 보여 주니 주인공 세 사람 찾기부터 시작합니다. ‘세박자 손이 엄청 크고 손에 눈이 달렸다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다른 친구가 ‘그건 손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그린 거 아닐까?’ 하며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칠판 위에 청소 당번 세박자 이름이 적힌 것’ 을 찾아내기도 하고 ‘급훈 액자에서 찌려보는 눈’ 이 무섭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2장. 자로詹 듯 교장 선생님’** 에서는 ‘세박자 친구들이 세박자를 끌어다니는 모습’ 이 너무 아파보인다면서 빨래 같이 되어버렸다고 걱정합니다. 한편 ‘자로詹 듯한 교장 선생님’ 이 조금 무섭고 어렵다고 합니다. 2장을 읽어 주는 동안 자신들도 칠판에 붙어 보고 싶다고 해서 세 명씩 번갈아가며 칠판에 붙은 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다.

**‘3장.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에서는 주인공 ‘기웅이, 동훈, 민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세박자’의 가족들 중 ‘기웅이 엄마’의 말과 행동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학생들이 모두 소리 내어 야유를 합니다. 한 학생은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냐?’면서 큰소리로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칠판에 붙은 채 고개 숙인 기웅이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 속상하다’고 합니다.

**‘4장. 네 탓이야 회의’**를 읽어가는데도 ‘세박자’를 걱정하기보다는 서로 남 탓만 하는 어른들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더욱 속상해하며 작품 속 ‘세박자’의 상황에 빠져들어 갑니다. 4장 마지막 문장에서 보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추측해 봅니다.

4장까지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 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흐름이 바뀝니다.

**‘5장. 아이들의 기발한 방법’**을 읽어 주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물었더니 ‘끌어당긴다, 옆에 있어 준다. 미끄러운 물질을 붓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세박자’가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68-69쪽에 실린 그림을 보면서 ‘세박자’를 구하기 위한 학급 친구들의 기발한 방법에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서현 작가의 그림이 주는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아, 이래서 책 표지에 비눗방울이 있었구나!’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림 © 서현



‘6장. 어른들의 기가 막힌 방법’ 을 읽어 주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니 어른들은 아이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서로 자기 방법만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네요.

‘7장. 특별 방송 뽕 방송’ 에서 학생들이 정말 화를 내고 속상해합니다. ‘동훈이 엄마’ 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아들이 칠판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데 자신의 방송 일만 할 수 있냐며 야유를 보냅니다.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8장. 남겨진 아이들’ 에서는 경찰과 방역당국까지 합세하여 ‘세박자’ 를 전염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사건을 확대하는 어른들 모습을 보면서 사건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독자들 마음도 점점 긴박해집니다.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9장. 달빛 비치는 교실’ 을 읽어 주기 전에 ‘달빛 비치는 밤까지 교실에 남아 있는 ‘세박자’ 가 어떨까?’ 물어보니 ‘그래도 셋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마 이제는 사건이 풀릴 것 같다.’ 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어갈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세박자’ 가 자신들이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가족 이야기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에서 학생들이 ‘아~ 그랬구나!’ 하며 ‘세박자’ 에게 공감을 합니다.

‘10장. 그거였어?’ 에서 드디어 ‘그 일’ 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면서 ‘세박자’ 가 외친 말이 무엇일까? 묻고 한 뜬 쉬었다가 ‘진작 이렇게 얘기 나눌걸!’ 이라고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까지 읽어 주고 학생들을 주욱 둘러보면서 눈을 맞추니 학생들이 “떨어졌다. 드디어...” 라며 반응합니다. 124쪽에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자 ‘칠판에 떨어진 사람’ 이라고 적힌 문구를 찾아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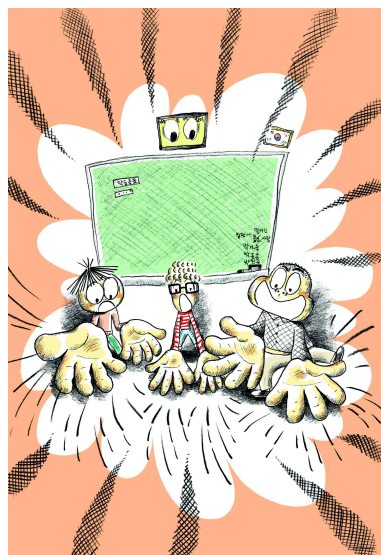


그림 © 서현

마지막 **11장**을 읽어 주자 ‘기웅이 부모님’ 이 벽에 붙은 걸 보면서 “이제 기웅이 부모님이 화해할 차례예요.” 라며 ‘기웅이’ 처럼 해죽 웃습니다.

두 번째 읽기 과정은 학생들이 다시 읽기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다시 혼자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작품을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찾아 질문을 찾아 적거나,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찾은 질문은 읽기 후 활동에서 질문 주고받으며 책 대화하기, 등장인물에게 인터뷰하기와 같은 활동과 연결 됩니다.

### ▶ 책을 읽고 난 뒤

본격적인 읽기 후 활동 전에 우선 이 작품을 교사의 읽어 주기와 학생들의 다시 읽기를 한 후의 느낌을 나눕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니까 책의 내용이 더 잘 기억난다. 집중이 잘 된다. 책 읽기가 재미있어졌다.” 와 같은 책 읽어주기에 대한 평가와 “기웅이 엄마는 정말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기웅이 엄마와 달라서 다행이다. 칠판에 붙어 있는 게 힘들었을 것이다. 친구끼리 서로 오해해서 붙었는데 잘 해결되어 다행이다. 동훈이 엄마가 자신의 직업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됐다.” 와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 작품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읽기 후 활동으로 등장인물 인터뷰하기를 진행합니다. 다시읽기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모아서 등장인물에게 가상 인터뷰활동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 동훈이 엄마, 기웅이 엄마와 같은 부정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빈 의자 기법’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이 인터뷰 활동에서 세 어른이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는 일관된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두 주인공 엄마에게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어린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이런 인터뷰 시간을 통해 어른과 어린이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주장하면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약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두 주인공의 엄마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감정이 더 커 보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 활동은 ‘세박자’ 되어 보기입니다. ‘기웅이, 동훈이, 민수’가 되어 서로 세 명의 주인공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내가 친구들과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경험에 대해 대화 나누면서 친구 사이에 서로 소통이 중요함을 이야기 나눕니다.

마지막 읽기 후 활동으로는 이 작품을 읽고 인터뷰 활동을 한 후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쓰기로 마무리 합니다. 학생들 각자 쓴 글을 모아 우리 반만의 책 만들기로 만들어 다른 친구의 글도 읽고, 우리 반만의 기념 책으로 정리합니다.

### ▶ 온 작품 읽기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4차시동안의 교사의 발문과 함께 한 읽어주기, 1차시의 다시읽기와 질문 찾기, 1차시의 인터뷰활동 2차시의 글쓰기로 모두 8차시 온 작품 읽기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평생 독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작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응원 동영상 속에서 최재천 교수의 말씀처럼 ‘한 학기 한 권 읽기’ 또는 ‘온 작품 읽기’는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방법입니다. 김훈 작가의 말씀처럼 아이들을 잘 아는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작품을 함께 읽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더 나은 우리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꽃 피는 교실을 응원합니다.